



**포스코건설, 코로나 의료진에 환혜로 감사 나누기**  
포스코건설은 인천지역 인천시 코로나19 방역대책반과 인천시 산하 31개 지역선별진료소에 해피트리·피카라 등 대형화분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환혜가 돕기 릴레이 캠페인'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화분 전달은 롯데건설 하석주 사장(가운데)의 지명을 받은 한성희 사장이 지역화훼농가도 돕고 코로나19로 고생하고 있는 지역 의료진과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표시하자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포스코건설



**삼양 KCI 안양천 정화 봉사활동**  
케이씨아이(KCI)가 지역 사회 환경 지킴이로 변신해 사회 공헌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삼양그룹의 화학 계열사 KCI는 지난 18일 경기도 안양천 일대에서 임직원 20여명이 참석해 '안양천 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KCI 임직원들은 안양천 인근 철산대교를 중심으로 위생식물 제거, 수질 정화 등 다양한 활동을 약 3시간 동안 진행했다. /삼양그룹



**갤러리아백 봉사단, 해양 플라스틱 수거 봉사**  
한화갤러리아 봉사단은 지난 19일 충남 태안군 세계자연기금(WWF), 문송지 가구 디자이너와 함께 해양 환경 정화 및 폐플라스틱 수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봉사단은 학암포 인근 해안 2km 일대를 왕복하며 플라스틱, 페그롤, 페비닐 등 해안 쓰레기를 수거했다. 갤러리아는 이날 수거한 120 포대의 분량의 쓰레기 중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을 활용하여 업사이클링 가구로 제작할 계획이다. /한화갤러리아

## 코웨이 18년 연속 '신기술혁신상' 수상

'한뼘직수 정수기' 혁신 인정

코웨이는 한국표준협회에서 주관하는 '2020 대한민국 혁신대상'에서 18년 연속 신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로 21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혁신대상은 신기술·제품·서비스 분야에서 혁신을 통해 획기적 성과를 이룬 기업에 대해 시상하는 상이다.

신기술혁신상을 수상한 '코웨이 한뼘직수 정수기(사진)'는 최초로 RO 멤브레인 필터 직수화에 성공한 제품의 후속 모델이다. 이 제품은 22cm의 한뼘 사이즈 크기, RO 멤브레인 필터 직수화, 유로 자동 비움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해 혁신을 이룬 점을 인정받아 신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속 모델이다. 이 제품은 22cm의 한뼘 사이즈 크기, RO 멤브레인 필터 직수화, 유로 자동 비움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해 혁신을 이룬 점을 인정받아 신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김승호 기자 bada@

## 유니클로, 코로나 난민아동 보호 기부금

베이비 제품 판매금액 일부 전달

유니클로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부터 난민 아동들을 보호하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난민기구에 기부금을 전달한다고 21일 밝혔다.

유니클로는 유엔난민기구와 글로벌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26일까지 온라인

스토어에서 판매되는 베이비 카테고리 제품의 판매금액 중 일부를 유엔난민기구 본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기부금은 난민 아동과 가족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 확보, 의료시설 접근성 향상 및 위생물품 지급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 전직처분의 정당성



김보락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근무장소나 직무내용을 변경하는 전직명령은 노동력의 적정 배치, 업무 운영의 활성화, 기업재편에 따른 인력 조정 등 다양한 필요에 의해서 이뤄진다. 최근에는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로 많은 기업에서 경영난 극복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고 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 그러나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지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에는 통근 소요시간, 노동 강도, 임금 차이 등 근로조건상 불이익은 물론이고 주거생활의 수준, 가족·사회생활 등 근로조건 외의 불이익도 포함된다. 전직처분으로 근무장소가 종전 근무장소로부터 먼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사용자가 통근차량 배치, 교통비 지급 등 생활상 불리함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는 권리남용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사항이 된다.

전직처분을 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기는 하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한편 무효인 부당전직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등을 통해 전직명령의 효력을 다투면서 전직발령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는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는 부당한 전직명령을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전직명령시부터 원칙복귀 시까지 기간 동안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법무법인 바른

## 한국전쟁 70주기, 스스로 명예 추락시키는 軍



문명철 기자의 국방 칼럼

올해는 한국전쟁(6.25) 70주기가 되는 해다. 한국전쟁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전쟁기념관마저도 코로나로 잠정 폐쇄돼 그렇지, 기념 분위기가 상당히 가라앉은 느낌이다.

분위기보다 중요한 것은 제2의 한국전쟁을 막기 위해 제복을 입은 군인의 복무자세다. 그런데, 복무자세가 바로 서지 못한 중견 군인들 많은 것 같다.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시기인데 말이다.

한국전쟁을 기념하는 약장을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정복 가슴에 부착하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에 '#장교', '#육군', '#소령' 등의 해쉬태그를 달아가며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 군인들 스스로가 한국전쟁의 의미와 군인의 명예를 깎아먹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약장은 군복무 간 자신의 경력과 공

훈 등을 나타내는 명예의 상징이다. 특히 '6.25전쟁 40주년장'과 '건군 50주년장'과 같은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약장인 만큼 패용에 더 주의를 해야 한다.

지난 2016년 12월, 22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A 대위는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두 약장을 정복 가슴에 달았다. 6.25전쟁 40주년장은 1990년 6월 25일 기준으로 당시 하사 이상의 현역군인만 부착이 가능하다. 건군50주년장은 1998년 8월 15일 기준으로 당시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또는 군무원만 부착이 가능하다.

2011년 육군 소위로 임관한 조 대위는 이러한 자격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위에 언급한 두 약장 모두 부착할 수 없었음에도, 국회출석이라는 준엄한 자리에 '가짜약장'을 달고 나온셈이다.

이 문제를 당시 최초보도한 기자는 군 당국으로부터 "후배 장교가 실수로 부착한 것을 꼭 지적해야 하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군 차원에서 교육을 하겠다"라는 말을 들었다. 그렇지만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01학번으로 알려진 항공병과 B대위

도 위 두 약장을 패용할 수 없다. 그런데 '부부군인'으로 국방TV와 국방부 페이스북에 조명을 받았다. 같이 출연한 남편 또한 자격이 없음에도 부부가 두 약장을 모두 부착했다.

육군은 소령으로 진급한 B 대위를 육군 간부모집 모델로 내세웠다. 물론 잘 못된 약장을 부착한 채로 말이다.

B 대위 한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다. 군과 관련된 해시태그가 걸린 인스타그램 게시물에는 소령, 상사 이상의 군인들이 자격도 없음에도 위 약장들을 부착한 사진을 통해 자신을 뽐내고 있다. 그게 부끄러움인줄도 모르고 말이다.

자기표현의 시대인 만큼, 군인이라고 해서 자신의 개성을 뽐내고 싶은 것이다. 민간인들과 달리 더욱 통제되고 더 많은 자기헌신을 해야 하는 직업군이다 보니 군복을 통해 자랑스런 자신을 나타내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군인의 명예와 떼어놓을 수 없는 군율의 준수에서 시작된다. 6.25전쟁 70주년장도 나올 것 같은데, 선배들에게 부끄러운 후진적 군문화는 제발 청산하자. /captinn@metroseoul.co.kr

### 매일유업

#### '아기언어 교실' 주제 애플루트 맘스쿨 진행

매일유업이 인스타그램 라이브방송을 통해 '애플루트 맘스쿨'을 진행하고 21일 밝혔다.

오는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진행하는 이번 애플루트 맘스쿨 강의에는 던스틴 베이비 랭귀지 한국 공식 트레이너이기도 한 '해피벌스요가' 최윤나 대표가 강연자로 나선다.

강의 주제는 '울음으로 알아보는 5가지 아기 언어 교실'로, 던스틴 베이비 랭귀지가 제안하는 아기 울음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소개할 예정이다. /조효정 기자

### 인사

◆**경남 거제시** ◇4급 승진 △기획예산담당관 정거룡 ◇5급 승진 △일자리정책과 박형도 △허가과 이옥우 △해양항만관 신상욱 △보건과 구신숙 △도시계획과 김성기

◆**경북 울진군** ◇4급 승진 △의회사무과 김진 오 △온정면 고재욱 △기성면 김우현 ◇5급 승진 △정책기획관 김진국 △안전재난건설과 표남호 △보건의소 전인숙

### 부음

▲**조경남시** 별세, 성애정·성경재(육군항공학교 선임교관)·성홍재(영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씨 모친상, 정승중(연남뉴스 영상마케팅부장)씨 장모상, 최수현·홍정아(대구동원중학교 교사)씨 시모상, 20일 오전 2시, 영남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03호, 발인 22일 오전 7시.

053-620-4670

▲**김복용씨** 별세, 김재경(전 국회의원)·재욱·재훈·미영·미진씨 부친상 = 20일 오전, 경남 진주 한일병원 장례식장 103호, 발인 22일 오전 7시. 055-795-0399

▲**이은주씨** 별세, 고용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씨 배우자상, 병훈·준혁씨 모친상 = 20일 오전, 서울 노원구 원자력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22일 오전 6시 15분. 02-970-1288

▲**송재영씨** 별세, 김종승(한국투자증권 영남PB1본부장)씨 장모상 = 20일 오전 7시,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22일 오전 7시. 02-2650-5121

▲**박봉순씨** 별세, 이경옥·성란·성자씨 모친상, 이건중(효성화학주 대표이사)·최필식·유영선씨 장모상 = 20일,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22일 오전 6시 30분, 장지 절두산성지. 02-2258-5940